

淨水處理技術의 轉換期에

— 第3回 심포지엄 開會辭에서 —

盛夏의 무더운 날씨임에도不拘하시고 第3회水道심포지엄 開會式에 臨席하여 주신 崔錫元 釜山市長님을 爲始한 來賓 여러분, 그리고 第3회水道심포지엄을 위하여 멀리 全國의 各道, 市, 郡에서 이 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水道關係者 여러분과 本會 會員 여러분께 深甚한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게되는 이水道심포지엄은 옛날그대로의 맑고 깨끗한 물을 다시 찾고 보다 좋은 물, 보다 豊富한 물 보다 값싼 물을 國民에게 供給하려는 水道人의 뜻이 뭉쳐진 모임이라고 하겠습니까.

自古로 물은 다스릴 수 있어야 資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資源인 물은 또한 우리들의 日常生活에서 한 時도 없어서는 안될 飲料水로서 우리의 生存과 不可分の 關係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금수강산이라 하여 맑고 깨끗한 물이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마는 産業의 發達과 都市의 人口集中 등으로 인한 各種 廢水와 下水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랑이었던 맑고 깨끗한 물은 이제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이들 廢水와 下水로 因하여 極度로 汚染된 上水道 水源은 現在의 淨水處理技術만으로는 滿足할만한 飲料水를 얻기 어려운 어떤 限界點에 到達하지 아니하였나 생각되오며 그런 點에서 우리의 淨水處理 技術도 이제 어떤 轉換期에 處하였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論議할 심포지엄의 內容도 主로 淨水處理 方法에 對한 問題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最近 世界的으로 上水道 處理에서 問題 點으로 나타나고 있는 飲料水에 있어서의 有機 鹽素化合物 除去에 對한 問題가 論議 되었습니다.

上水道의 鹽素處理過程에서 發生할 수 있는 有機化合物의 一種이 人體에 암을 誘發할 可能性이 있다는 學界의 報告가 外國에서는 이미 數年前부터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關心을 가지고 研究한 結果를 오늘 여러분에게 發表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釜山, 大邱 등 慶南地方 都市의 上水道 水源인 洛東江에 下水와 廢水가 大部分 處理過程을 거치지 아니하고 直接 放流되므로써 惹起되는 水質汚染에 對하여 그 汚染原因과 排出量 등을 調査 分析하여 將次의 變化樣相을 推計한 內容으로써 廢水와 下水가 洛東江水質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調査研究 結果의 發表가 되었습니다.

다음 셋째로는 淨水의 高級處理에 대한 問題가 되었습니다.

水質汚染問題가 大都市의 給水源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고 있는 狀況에서는 淨水의 高級處理, '即 都市의 淨水處理에서 從來 施行하고 있는 1次處理인 雜物處理와 二次處理인 生物化學的 處理에서 더 發展한 高級處理技術의 向上이 必要하다고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強力한 酸化作用에 의한 脫色, 脫臭, 殺菌, 有機物의 分解 등에 현저한 效果를 나타내면서도 二次 公害를 惹起시키지 않으며, 設備가 간단하여 現在 日本 및 유럽 等地에서 實驗段階를 거쳐 實地 淨水의 高級處理에 活用되고 있는 오존處理에 對한 內容이 되었습니다.

넷째로는 오늘 이 자리에 多數 參席하여 주신 上水道 一線에서 從事하시는 여러분께서 平素 궁금히 생각하시던 疑問點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本協會에서는 이 심포지엄을 準備하면서 여러분께 書面으로 質問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마는 그 質問받은 內容에 對한 答辯의 時間이 되었습니다.

勿論 質問 받은 內容 全部를 이 자리에서 答辯해 드려야 하겠습니까 마는 時間關係上 그 중 몇가지 質問事項에 대하여만 答辯해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미처 答辯드리지 못하는 事項에 대하여는 協會誌에 答辯內容을 追後 掲載하도록 하겠습니다.

以上으로서 오늘의 심포지움에서 論議될 概略적인 內容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오늘의 이러한 모임이 앞으로는 水道人의 相互發展을 圖謀하는 모임으로 育成되어 나가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聲援을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第3回 水道심포지움을 빛내주시기 위하여 往臨하여 주신 崔錫元 釜山市長님을 위시한 來賓 여러분과 滿場하신 參席者 여러분께 다시한번 感謝의 人事를 드리며 여러분께 恒常 健康과 幸運이 있으시기를 眞心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의 이 심포지움을 원만하고 盛大하게 마칠 수 있도록 物心兩面으로 도와주신 會員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79年 7月 7日

韓國上水道協會

會長 鄭 義 錫

(이 글은 1979年 7月 7日 開催한 第3回 水道 심포지움 開會辭의 全文입니다.)



開會辭를 하는 鄭義錫會長